



SBS 새 수목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 배우지



"더 이상의 부진은 없다." 가수 겸 연기자 배수지가 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 주연을 맡고 새로운 변신에 나선다. 작은 사진은 단발로 변신한 드라마 속 캐릭터 모습.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대충 묶은 단발에 큰 소리 팍팍… ‘국민 첫사랑’은 잊어주세요”

긴머리 싹둑…캐릭터 위해 과감한 변신
이종석과 환상 케미…시청률 30% 바람
미래를 본다면? 언제까지 사는 지 궁금

”

예쁘고 섹시한 배수지(23)는 없다. 평범하지 않는 자신의 삶이 괴로워 울부짖는 배수지가 있다. 27일 첫 방송하는 SBS 수목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에서 그렇다. 그가 연기자로서 본격 나선 뒤 네 편의 드라마와 두 편의 영화를 마치고 만나는 작품이다. 2010년 걸그룹 미스에어로 데뷔하고 이듬해 KBS 2TV 드라마 '드림하이'로 연기를 시작해 어느새 7년차가 됐다. 시간의 흐름만큼 연기자로서 배수지에 대한 대중의 기대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반응에 부응하고

자 연기는 물론 외모 변신에도 공을 들였다. 배수지는 "7년 전의 아쉬움을 털고자 더욱 열심히 했다"며 초심을 강조했다. 그는 가장 먼저 긴 머리카락을 단발로 잘랐다. 현재는 머리카락을 붙여 긴 생머리를 선보이지만 촬영 초반만 해도 배수지의 과감한 시도에 주변 사람들이 더욱 놀랐다. 대개 여성이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는 건 심경의 큰 변화가 있는 경우가 많아, 혹시나 신변에 어떤 일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염려 때문이다. 또 긴 헤어스타일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고 관리하는데도 불편한 점이 있어, 배수지에게 격정스런 시선이 쏟아졌다. "오랫동안 긴 헤어스타일을 고수했던 까닭에, (머리카락을 자르니)주변에서 걱정하시더라.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말이다. 하하! 하지만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 단발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서 망설임 필요가 없었다.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만으로 캐릭터에 더욱 집중해 연기할 수 있었다." 배수지가 "단발이 '홍주스럽다'라고 말했듯이 극중 '다칭' 백수인 홍주는 집에서 안경을 끼고 머리는 대충 묶고 지낸다. 우악스럽게 음식을 입에 넣고, 소리를 팍팍 지르는 등 그동안 많은 대중이 인식하고 있는 '국민 첫사랑'의 예쁜 이미지에서 벗어나 있다. 또 꿈으로 미래를 보는 특별한 능력을 지녔지만 나쁜 일을 막을 수 없는 무력함을 절절한 감정으로 소화한다. 배수지는 출연 결정에 주저함이 없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를 집필한 박해련 작가와 데뷔작인 '드림하이'로 첫 호흡을 맞추면서 경험한 좋은 기억에 이끌려 3월부터 5개월을 함께 보냈다. "드림하이" 이후 박해련 작가님과 꼭 한번 다시 해보고 싶었다. 처음 대본을 받고 이야기가 재밌어 다음 회가 너무 궁금했다. 첫 작품 때를 생각하면 잘 못했던 것 같다. 하하! 그때의 아쉬움

이 커 이번에 풀어내고자 더 열심히 했다." 배수지가 드라마에 녹아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연출자 오창환 PD의 박수를 절로 이끌어냈다. 오 PD는 "연기자로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대단했다"면서 "이미지를 바꿔야하는데 있어 짜증 한번 내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고마웠다"고 했다. 상대역 이종석은 "배수지와 멜로 장르에서 공연하는 데 있어, 배수지는 최고의 컨디션으로 매 순간 설레면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해줬다"며 여배우로서 그의 분위기와 감성을 극찬했다. 배수지도 "이종석이 잘 이끌어줘서 호흡이 잘 맞았다. 함께 연기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화답했다. 연기자로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 단단히 준비한 배수지다. 단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전작인 지난해 KBS 2TV에서 방송한 '함부로 애틋하게'의 부진이다. '구

가의 서'(2013)를 20%에 가까운 시청률로 견인했지만 전작은 방송 전부터 뜨거웠던 화제성에 비하면 못내 아쉬운 성적이다. 배수지는 "모든 연기자들이 그렇겠지만, 항상 열심히 하자는 마음으로 작품을 임한다. 이전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의 예상 최고 시청률에 대해서는 "30%라고 말하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이종석이 "11부에 키스신이 있어 20%를 넘을 것 같다"고 하자, "(20%가 넘으면)춤을 추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배수지는 드라마 속 캐릭터처럼, 미래를 꿈으로 볼 수 있다면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를 알고 싶다고 했다. "꿈을 쫓는데 살아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충격을 받았지만, 아마도 남은 날 동안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을까.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열심히 살고 싶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연예뉴스 HOT 5

방탄소년단 '승-Her' 빌보드200 7위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앨범차트에서 또 하나의 대기록을 세웠다. 25일 빌보드 매거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최신 앨범 '러브유엘프 승-Her'가 빌보드200에서 7위에 올랐다. 7위는 아시아 아티스트로 최고 순위다. 기존 아시아 최고 순위는 2010년 5월29일자 차트에서 필리핀 출신 채리스 펜핀코의 '채리스'가 기록한 8위였다. 한국가수로는 작년 10월 방탄소년단이 '웍스'로 기록한 26위다. 싱글차트인 빌보드 핫100과 함께 빌보드의 양대 메인차트인 빌보드200은 앨범판매량과 트랙별 판매량, 스트리밍 실적 등을 기반으로 해당 주의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앨범의 순위를 매긴다. 빌보드는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핫100에 동시 진입한다면, 케이팝 가수 중 두 번째로 한국어 노래를 싱글차트에 진입시키는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방탄소년단은 한국가수 최초로 5장 음반 연속 빌보드200 진입 기록도 함께 세웠다.

신지수, 작곡가 이하이와 11월 결혼



신지수

이역배우 출신 신지수(32)가 11월 3일 서울 모처에서 4살 연상의 작곡가 겸 음향 프로듀서 이하이와 백년가약을 맺는다. 신지수는 친구의 소개로 이하이를 만나 1년 2개월의 교제 끝에 결혼을 약속했으며,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결혼식을 준비해왔다. 신지수는 2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마음이 한결 같고, 가장 날 잘 받아주는 사람 같아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 내 마음을 워낙 편하게 해줘서 이제는 제일 편안한 사람이 됐다"고 예비신랑을 소개했다. 2000년 SBS 드라마 '덕이'로 데뷔한 신지수는 2006년 KBS 2TV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에서 이승기와 부부로 출연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2010년에는 그룹 디헤븐 멤버로 참여하며 가수로도 데뷔했다. 예비신랑 이하이는 최근 가수 박효신 앨범에 프로듀서로 참여했고, 다양한 광고음악도 작곡했다.

대마 논란 한서희, 걸그룹 데뷔 선언



한서희

빅뱅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지망생 한서희가 내년 걸그룹 데뷔를 선언했다. 한서희는 24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4인조로 늦어도 내년 1월 즈음 데뷔한다.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먹먹을 거, 시작이라도 해보자 하는 마음에 데뷔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소개한 한서희는 "걸그룹으로 안 뜰 거라는 걸 알고 있다. 망할 것을 알고 하는 거라 큰 기대하지 않는다"고 덧붙혔다. 대마초 흡연에 대해서는 "제가 쓸데없는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다"고 머리를 숙였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마 총 9g을 구매하고, 서울 신당동 자택에서 7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했다.

장동건, 미드 '슈츠' 리메이크작 주연



장동건

배우 장동건이 6년 만에 드라마에 출연한다. 장동건은 내년 상반기 방송될 KBS 2TV 새 드라마 '슈츠' 출연을 확정했다. 장동건은 '슈츠'에서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전설적인 변호사 최경서 역을 맡았다. 그간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여준 장동건은 이번 드라마에서는 스마트하고 세련된 변호사로 변신할 예정이다. '슈츠'는 현재 미국에서 방영중인 인기 시리즈로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리메이크된다. 김정민 작가의 세련된 극본에 '추리의 여왕'을 통해 신선하고 스타일리시한 감각을 인정받은 김진우 감독의 연출이 더해져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신사의 품격' 이후 6년 만에 안방극장에 컴백하는 장동건은 앞으로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다채로운 캐릭터와 작품으로 더욱더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걸그룹 트와이스, 내달 말 컴백 확정

걸그룹 트와이스가 10월 말 컴백한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트와이스는 10월 말 컴백을 확정하고, 현재 상세한 일정을 조율중이다. 2015년 '우아하게'로 데뷔한 후 '치어 업' '티티' '낙낙' '시그널'까지 연속 히트를 기록하면서, JYP 측은 트와이스의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이번 컴백 프로젝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더욱이 일본시장에 진출해 성과를 내면서 이번 컴백은 국내외 시선이 쏠려 있다. 이미 트와이스의 컴백 작업은 속도를 내고 있다. 9월 초 캐나다에서 신곡 뮤직비디오 촬영을 한 사실이 알려져 팬들의 기대가 높다. 주식시장도 트와이스의 컴백에 뜰췌었다. JYP는 트와이스의 컴백 소식이 전해진 25일 처음으로 주가가 1만원을 돌파했다. 이날 JYP는 전 거래일 대비 8.65% (800원) 상승한 1만500원으로 마감했다. 장중 한때 1만150원을 돌파하며 신고가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